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농촌 일손돕기 실시

✎ 서세진 기자 | ☎ 승인 2026.05.29 10:38

지역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 지원



딸기농가 일손돕기 모습 (사진제공=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지난 28일, 순성면 아찬리 소재 딸기농장을 방문하여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찾아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에 나섰다.

이번 일손돕기에는 당진지사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상토제거, 비닐 제거 등 딸기 하우스 정리 작업을 도우며 지역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영농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도움을 받은 농가 주민은 “딸기 하우스 정리를 마무리해야 새로운 작업이 가능해 걱정이 많았는데, 한국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손을 보태준 덕분에 큰 시름을 덜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주은규 당진지사장은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적기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촌일손돕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나눔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서세진 기자 4096900@naver.com